



아이티 긴급구호 현장에 나뉜 약사여래불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아이티 현지에서 매일아침 예물을 봉행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든 주민들이 차레를 기다리고 있다.

#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1월 지진이 휩쓴 아이티의 2월은 태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섭씨 35도를 넘어선 기온은 물을 마셔도 그대로 뜨겁게 되었다.

멀리서 엄마 손을 꼭 붙잡은 아이가 울상이 되서 걸어온다. 가까이와 보니 치료받은 아이보다 엄마의 발목 치료가 시급해 보였다. 발목에 난 깊은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다리까지 절단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 상태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던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던 것이다.

조계종 아이티 구호 의료봉사단이 현지에 도착해서 본 포르토프랭스 인근 따바 지역은 환자와 보호자를 구분할 수 없이 아픈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 겨를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말아야겠지요.”

의료봉사 단장 묘장 스님(총무원 사)



회국장은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사단 귀국 기자회견회를 열고 5일간의 봉사활동과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1월 12일 발생한 아이티 지진은 대재앙이었다. 비참한 아이티 현장 소식에 각국의 구호 손길이 이어졌다. 불교계도 발 빠르게 구호팀을 구성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곧바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구호기금을 모금하고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동안 모금액이(2월 18일 기준) 5억 4000만여 만원에 이른다. 의료봉사단은 묘장 스님을 단장으로 동국대 일산병원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1월 31일 발대식을 갖고 2월 5~9일 아이티 참사현장에서 의료구호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아이티 구호 의료봉사단’은 2월 5일 아이티 뽀네프 지역에 의료분부기지를 세우고 첫 진료를 시작했다. 봉사단은 호시호보(虎視虎步)의 자세로 의료활동에 매진했다. 용맹정진이 따로 없었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주민들이 밀물처럼 모여들었다. 현지 주민 대부분이

병원 진료경험이 없었다.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다보니 상처에는 염증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열굴에 땀이 내리고 있는 것도 잊은 채 환자를 진료했다. 이렇게 첫날 치료한 사람이 273명이었다.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봉사단은 매순간 불보살님들께 간절히 기도했다. 한사람이라도 더 치료할 수 있

이티의 은혜가 모두 문을 닫은 상태라 현지 주민들은 현금이 없었다. 대신 UNDP가 실시하는 잔해 제거 등 청소 작업을 하고 하루 5달러씩을 벌 수 있었다. 환자는 이삼일을 일해 번 돈으로 X-ray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봉사 둘째 날, 현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한층 수월하게 진료가 진행됐다. 하루만에 조계종 의료봉사단의 진료소식이 일소문이 났다. 멀리 떨어진 마을주민들과 현지 경찰, UN 직원들이 조계종 의료봉사단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날이 가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외과·소아과·성인병 등 진료과목도 가지가지였다.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지막 날까지 무사히 1137건의 진료를 마쳤다.

봉사활동 기간 동안 묘장 스님은 아이티 곳곳에서 펼쳐지는 각 나라와 NGO단체의 구호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정보와 의견을 교류했다.

한국의 경우 구호활동은 대한적십자사에 협의·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1인당 20kg을 넘지 않게 짐을 꾸려야하는 여건

## 의료진 15명 봉사팀 2월 5~9일 파견

### “불교계도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해야”

도록 해달라고.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환자들은 치료가 가능했지만 상처가 심각한 환자들은 응급조치 후 인근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했다. 큰 병원으로 이송된 한 환자는 X-ray촬영이 필요했지만 환자는 아픈 상처를 안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다. 치료비 마련을 위해 환자가 찾아간 곳은 포르토프랭스에 위치한 UNDP(유엔개발계획·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정하는 기구) 아이티 임시본부. 접수 이후 아

상 개인물품을 최소화했음에도 아이티에 가지고갈 약품을 넣을 공간이 부족해 아쉬워했다고 한다.

묘장 스님은 “독일은 국가에서 200억 원을 지원해 전용 헬기로 인력과 의료품을 전달하고 아이티에 3개월 간 머물며 안정적인 의료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원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국경없는 의사회는 경우 재난발생 현장에 48시간 이내 도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봉사단은 서울에 와서도 땀이 채 마르지 않았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한 현지인들에게 보건 의료분야와 학교건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아이티에 발을 디뎠을 때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 곳의 도움으로 계획했던 의료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보람도 큼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모두의 일입니다. 아이티에 재난 극복을 위한 자비의 손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티에 나뉜 약사여래의 화신,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지구 반대편 아이티에서 자비의 인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글=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사진=공동취재단



## 업장소멸 법륜대(운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륜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 불자의 손길이 연이어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전생의 목은 빛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금강경을 법륜대에 각각 다른 숫자로 복장하여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특징**

1. 대한민국 수제품으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부처님 한 분 한 분 1,080분의 명찰을 특수 투명 케이스에 넣어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경제 걱정없는 작은 천불전이 되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1-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